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4. 19(화) 11:30		
배포일시	2011. 4. 19(화) 9:3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(2150-7610)	담당자	김성은 사무관(2150-7612)

제 목: 제1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

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(화) 09:30, 제1정부청사에서 『제 1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』를 개최하여,

- ‘국제 개발 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’, ‘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’, ‘한-아프리카조세공동체(ATAF) 협력 회의 결과 및 향후 협력 방향’ 안건 등을 논의하였음

<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>

□ 윤증현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개선되고 있으나, 선진국과 신흥국간 격차 및 중동, 일본, 유럽 등의 지역적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
- 특히, 그동안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어 왔던 신흥국들의 경우에도, 최근 경제성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및 과열 가능성,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

□ 한편, 윤증현 장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흥경제권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,

*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美·日·EU의 비중은 지속 하락
: ('08) 31.5% → ('09) 29.2% → ('10) 22.2%

-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신흥국과 협력채널 구축 및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,

-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**신흥국 경제**의 경우 **불확실성이 높다는 점**을 고려할 때,
- 우리 기업들이 **신흥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,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에도**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
<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 강화 >

- 윤증현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**신흥지역에 대한 심층연구**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,
- 그동안 신흥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**정보수집의 어려움, 전문 연구인력 부족** 등으로 충분한 정보가 생산·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
- 따라서, 정부 차원에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여,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**신흥지역 연구역량을 강화**해 나가야 하며,
- 이를 위해 국내·외에 산재한 연구기관들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'**신흥지역 연구 전담 기관**'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,
- **KOTRA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KIEP** 등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현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현지 조사역량을 지속 확충**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

< 개도국과 개발협력 확대 및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>

- 아울러, 윤증현 장관은 개도국과 개발협력을 확대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, 개도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함을 강조

□ 다만,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2015년까지 3배 이상 확대 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,

* ODA규모(ODA/GNI비율): ('10) 12억불(0.12%)→('12) 14억불(0.15%)→('15) 30억불(0.25%)

- 개도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,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□ 윤증현 장관은 특히 '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'에서도 '개발지식 공유'가 핵심요소로 다루어지고,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,

- 「국제개발 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」은 지속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신탁기금* 등을 활용하여 개발 컨설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안전임을 강조

* 신탁기금 출연 예산(억원) : ('09) 251 →('10) 501 →('11) 682

□ 또한, 개발 컨설팅 산업 육성은 고급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는 물론, 국제 ODA 조달시장으로의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
- 국내의 협소한 시장 규모와 기술·인력·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,

□ 오늘 논의를 계기로 개발컨설팅 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,

- 지식집약·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개발 컨설팅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

※ 「국제 개발 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」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

기획재정부 대변인